

新 부가가치 미래산업 동력 얻다

남원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실시설계 국비 5억원 확보

남원시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면서 新 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00억 예산을 투입 곤충 생산·가공 시설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북 예천군과 강원도 춘천시에 이어 호남권에서는 전북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업 예산은 당초 삭감 예정이었으나 남원시에서는 시장을 필두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관련 부처를 수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의의 노력으로 국비 5억원

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곤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 균일 품질·대량생산 유용 소재 개발 생산 단가 절감 관광 자원화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곤충산업은 식품 분야뿐 만 아니라 사료, 유용 소재 등 여러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있으며, 다른 가축에 비해 물과 사료 소비량이 적고 빠르게 성장 가능하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추후 건립할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및 미꾸리 양식 단지와의 연계 사업과 관광 자원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전환 등 곤충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며, 시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등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사전 절차 이행 등 선제 대응을 통해 늦어도 2026년까지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 미래 식량자원 동시에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념으로 최선을 다해 뛰어들었다면, 이번 거점단지 조성은 미래산업 도시로 나아가는 큰 도약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국 최초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10만명 유치 달성 목표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지난 12월 26일자로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남원시민서민 제도,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시에서 추진할 다양한 생활인구 사업을 규정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남원시는 온라인 남원사랑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관광차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감면·할인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인구 지원센터에서는 남원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인구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안순영 기획실장은 “그동안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정책알림 서비스를 개시, 4,000여명의 정책고객에게 지역 방문을 위한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최종 선발

임실군이 2023년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정했다.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문화체육과 흥인법 팀장, 산림복지과 박정규 팀장, 행정지원과 오승준 주무관, 경제교통과 이흥관 주무관, 기술보급과 이수진 농촌지도사를 각각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흥인법 팀장은 오수면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실군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운영시간 확대로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에 기여했다.

산림복지과 박정규 팀장은 기존에 방치되어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던 군민회관 돌계단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구 오수역 부근 폐철도부지에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했다.

행정지원과 오승준 주무관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해 비해 민원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와 민원창구 안전유리 등 7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경제교통과 이흥관 주무관은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 인가 전에 47% 분양률 달성으로 11개 기업 유치와 2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기술보급과 이수진 농촌지도사는 분화국 40,900개와 현애국 350개 국화

를 재배하여 임실N치추축제에 56만명, 봉어섬 생태공원에 40만명의 관광객이 다가가도록 풍성한 볼거리 제공에 기여했다.

군은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개인 성과평가 최고 가점의 인사상 우대 조치와 국외 정책연수 우선선발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에 힘쓰고, 군민들을 위한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 확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부서 및 군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1차 실무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2024년 신년사

시민 기대·열망에 부응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각지대를 먼저 생각하며 더 살기 좋은 미래를 위해 제안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데 발 벗고 뛰겠습니다.

건제와 균형을 이루고 화합하는 상생의회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남원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외계층과 사

환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귀한 동물로 한창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해로 꼽힌다고 합니다. 비상하는 용의 기운처럼 올해도 남원시민 모두에게 행운이 넘치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남원시의회의는 그 어느 해보다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모색과 지역 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새해에도 시민의 진정한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시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장속에서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외계층과 사

순창군 발효미생물진흥원, '순창홍국쌀' 출시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순창군수 최영일, 이하 진흥원)이 순창쌀을 활용해 개발한 '순창홍국쌀'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순창군은 쌀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순창의 우수한 발효미생물과 발효기술을 보유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통해 순창쌀을 활용한 고부가 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순창쌀을 발효해 만드는 쌀 발효음료인 마시는 발효쌀 순창기차야를 상품으로 출시했으며, 12월에는 붉은 쌀과 다양한 가공식품소재로 이용 가치가 높은 '순창홍국쌀'을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순창홍국쌀의 주요 성분인 홍국균은 붉은 약용효모(Red

yeast)로 불리며, 쌀을 발효할 때 붉은 색을 생성하고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모나콜린K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진흥원은 순창산 백미를 원료로 순창홍국균으로 발효해 만든 순창홍국쌀을 자체 개발했으며, 개발한 순창홍국쌀에 대해 항고지혈 효과와 혈행개선효과에 대해 기능성 시험(효소 시험, 세포시험)을 실시한 결과 혈행개선효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울러, 진흥원은 순창홍국쌀의 본격적인 대량생산을 위해 내년에는 홍국 전용 쌀발효장비(자동드럼제곡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며, 이로써 연간 순창홍국쌀 60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순창쌀 약 100톤을 소비할 수 있는 규모다.

이사장인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창홍국쌀 상품화를 통해 순창쌀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국쌀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질병률을 보이는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100세 건강장수 고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순창의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천연물 화장품 임상센터 건축 국비 확보

남원시는 지역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이하 임상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로 2024년 국비 40억원(총사업비 1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억원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을 증액 반영시킨 것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남원시는 임상센터 건립을 위해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후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국비 지원의 질실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결과로, 전국 남부권에 유일한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를 국비로 남원에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원시는 이번 확보한 국비 40억원 등으로 2025년까지 시설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택·건축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23년 주택·건축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종합평가는 주거환경 및 경관 분야, 주거복지 및 공동주택 분야, 도시재생사업 및 건축행정 개선화 업무 등 6개 분야 51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주택·건축분야 평가제도이다.

군은 이번 평가서 놓여온 빈집 정비와 주택개량,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건축 행정 개선화 등 주요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도시재생 유공 공무원 표창 및 공공디자인 발전 유공에 민간인이 표창을 받는 등 올해 건축행정민원민원 함께 노력했음을 인정받았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주택·건축분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단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전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다. /남원=김기두 기자